

# 산돌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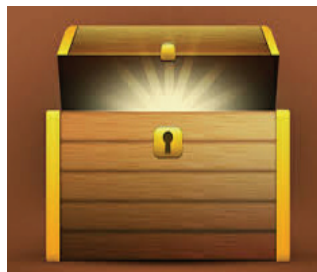
금주의 말씀	2
매일기도	4
성경 자세히 읽기	6
발에 감추인 보화	10
중보기도	11
가족소식	12
부서별소식	14
예가소식	15

## “한결같은 말씀”

요즘 시간적 여유가 있어 5년 전 이사 왔을 때 쌓아 두었던 작은 방 베란다의 박스들을 며칠 전에 정리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어릴 적 책, 작품집 등의 잡동사니, 2002년 초에 발행한 몇 부의 소식지, 그리고 산돌 특집호 등이 들어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하나 하나 들춰보았다. 교우들의 젊은 시절과 청년부의 초등학교 시절 흑백사진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번에는 발에 감추인 보화를 읽어 보았다. 처음 나온 예가교회의 교패를 달기 위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윤이 나게 닦는 진주님을 그려보니 입가에는 엄마미소가 피어 오른다. 새로운 예배를 위해 리허설을 한다는 소식과 새홈페이지를 완성했다는 소식, 첫 유

의 내용도, 중보기도의 내용도, 심지어 특집호는 흑백에서 전면컬러로 변했는데, 유독 변함 없이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인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막 12:29-31)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는 교역자님의 말씀은



똑같았다. 위의 성경말씀은 요즘 주일연경반에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다.

젊은 30대였고, 함께 양육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그 때도 행복했지만, 돈

아세례 교육 공지도 눈에 띈다.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는 느낌이다.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을 처음 받게 된 엄마들이 가족모임을 여유롭게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가족소식도 있다. 그 때를 떠올려 보니 가족모임을 하는 동안 교역자님들이 베이비시터를 해 주셨지만, 안 계실 때는 우는 아이들을 옆에 두고 모임을 했기에 계획한 순서를 다 소화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2002년의 추억 속에서 '그 때 참 좋았지' 하며 행복함에 젖어 있는데, 문득 산돌 300호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말씀인, 하나님께서 주신 새 가족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예가비전'의 말씀이 한 눈에 들어온다. 교우들도, 가족소식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요즘이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하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좋아하기 위해, 또 좋아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서 산책 신청하기, 캘리그라피로 새 이름을 쓰고 칭찬하기, 아이들의 독후활동지를 이용하여 좋아하는 마음 표현하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등의 계획을 세워 즐겁게 실행하고, 실행 후 반성하면서 가족들을 더욱 좋아하는 지금의 내가 좋다. 또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교역자님들을 생각하며 더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지금이 참 좋다.



신명기	5 : 1 - 21
사도행전	2 : 1 - 13
요한복음서	14 : 15 - 31

■ 교회의 절기인 성령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오십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강림절기를 또한 교회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강림절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더 성령을 받기를, 성령으로 살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집중하여 기도하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의 횟수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기도의 횟수를, 기도의 질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기도의 질을 채우는 절기, 그리고 다른 절기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많았다면 성령강림절기에는 성령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교회를 만드는 일임을, 그리고 교회를 튼튼히 하는 일임을 깨닫고 평소보다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더 큰 시각에서 자신이 삶을 바라보고 '내가 교회다, 우리 가족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매우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장면은 마지막 식탁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쪽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

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목사님과 교우들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탁의 장면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계명(혹은 말)을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한번도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로 권면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낯설기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매우 집중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에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이 뭐냐'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저는 본문에 집중하여 읽어가면서 가룟 유다의 질문이 매우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질문한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낸다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되어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동떨어지게 느껴지고 매우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희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까닭과 관련하여서는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로 대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에 집중하여 읽으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딴짓을 하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곳에서 강조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짚어주시고 다시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에서 교훈과 가르침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 내 계명,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입니다. 이것이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교역자에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교역자들을 사랑하면 교역자들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예가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가르침은 워크북에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일상 속에서 훈련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가르침과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워크북 안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가족모임과 워크북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고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가르침이고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워크북을 채우고 훈련하고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맛 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역자들의 말을 지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가족모임으로 살고 워크북을 쓰면서도 여전히 채우기에 급급하고 하기 싫은 숙제일 따름이라면, 워크북을 쓰면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진보도 행복도 기쁨

도 감사도 늘어가고 있지 않다면,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역자의 말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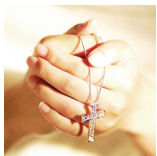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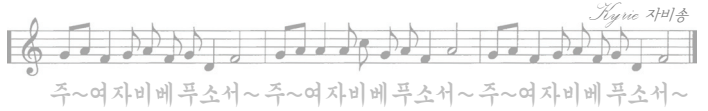
가족모임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며, 워크북은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입니다. 가족모임과 워크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모임은 즐겁게 시작해서 감동적으로 끝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시작하고 끝날 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모임의 현주소는 아직 손 잡고 노래 부르며 끝내는 순서가 쑥스럽고, 노래가 빨리 끝나기를, 어색한 순간과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날과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육체가 주는 느낌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와 거리가 먼지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잡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쑥스러워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은 아직은 내 몸이 아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점점 해 볼 수 있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성령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기 동안 성령을 받는 기도에 집중합시다. 또한 교회에 집중합시다.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해, 우리 가족모임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든든하게 서는 절기로 보냅시다.

가족모임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며, 워크북은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입니다. 가족모임과 워크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성령강림절 둘째 주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31편 1-5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 첫 기도

주님,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  
소서. 남의 생명을 깎아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옛 존재는 죽고, 나

의 생명을 주어 많은 생명을 유익하게 하  
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존재, 성령  
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5-6/1-2/3-4  
1-2/3-4/1-3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  
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  
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  
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  
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31편 19-24절  
소리 내어 천천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크지요?  
주님께서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 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 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49 회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11)

나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잘 살아야 100년 밖에 안 되는 인생에서 나의 육체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가? 성경은, 육체가 가장 잘 쓰이는 때는, 육체를 가지고 형제를 먹일 때라고 전한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육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육체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육체, 형제를 먹이고, 살리는 육체가 가장 좋은 육체이다.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육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 경우이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육신'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일을 두고, 그의 육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증거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의 일반적인 교설에서 육체를 악하고 무익한 것으로 규정하는 입장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육체는 그 자체로 악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다. 육체는 내가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생각에 따라 육체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쓰면 그 육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 약속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육체이다. 여기서, '생명'은 '생존한다'(survive)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곧 신적인 생명(divine life)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의 표현을 빌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해서 얻어야 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생명이라 가르치셨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를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데 쓰면, 그 육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육체이다.

2세기에 주님의 생활양식이란 내용으로 교회의 삶을 전한 '디다케'가 제시하는 두 가지 길은 육체를 어떤 가르침, 어떤 영을 근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음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내가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영으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쓰는 육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것이고,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데 쓰는 육체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것이다. 또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의 아들로 살고 있는지도 드러난다. 성령을 따라 형제를 사

랑하는 일에 육체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인 사람이고, 세상의 영을 따라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 육체를 쓰는 사람은 혈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즉,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근본, 나의 뿌리가 달라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느 누가 육체를 그저 무익하고 악하다 할 수 있겠는가?

내 육체를 아끼고,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쓰는 육체는, 내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이다. 성경은 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전한다. 이 육체 안에는 성경이 전하는 생명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내가 지금 사는 방식, 나의 존재가 내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를 분명히 결정하고, 선언하고, 자기의 옛 근거와 결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나의 새로운 근거, 새로운 뿌리,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각에 근거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 때는 아버지도 다르고, 어머니도 달라지며, 형제도 달라진다. 나의 가족이 달라진다. 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방식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형제로 사는 새로운 가족이며, 이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 부른다.

건물만 지어놓고, 교회 간판을 달면 교회 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온갖 종교적 상징물들과 예식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근본이, 자기의 뿌리가 바뀐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이다. 자기의 근본이, 자기의 뿌리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들, ‘나’라는 존재를 채우고 있는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인 사람들, 내가 사는 방식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인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어도 그만이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교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모인 사람들의 정체가 교회를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라 불러서는 안 된다.

교회는 아무나 와서 구경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는 곳이다. 교회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교회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만이 함께 살 수 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달려간 목표이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간 목표이다. 그 목표는 나의 존재가 사랑으로 가득 하게 되는 것이며, 온 세상이 사랑으로 뒤덮이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이를 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 신적인 생명을 누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얻고자 하는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도대체 어떤 생명이기에 나의 목숨을 던지는 일조차 아깝지 않게 여긴단 말인가?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생명은, 사랑하는 존재가 누리는 생명이다.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일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생명이고, 신적인 생명이다. 날마다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생명, 이 생명이야말로 목숨을 던져서라도 얻고 싶은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자, 기도이다.

교회는 자기의 존재가 날마다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사는 생명을 소원하며, 또한 온 세상이 사랑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축제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누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 곧 사랑이고, 교회가 전하는 기쁜 소식도 사랑이다.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며, 사랑하는 삶이 곧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생명이고, 구원이다. 유대인들은 권위있는 율법교사들이 토라로부터 추출한 계명집인 ‘할라카’, 즉 ‘삶의 길’이라는 이름 하에 무려 613개나 되는 계명으로 된 계명집을 가지고 있었다. 613개의 계명에는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라카’를 그 표현이 뜻하는 바, ‘생명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들이 할라카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생명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윗 가문의 회복과 번영을 생명이라 여겼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다윗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 곧 이스라엘이 얻어야 할 생명이라 여긴 것이다. 더 나아

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생명이라 여겼다.

예수님이 이에 동의했다면, 할라카를 지키라고 가르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생명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이 아니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예수님의 희망과는 정반대편에 있었다. 예수님이 해석한 토라의 핵심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다. 이 계명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꿈은 온 세상이 사랑으로 뒤덮이는 날이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경계를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어느 민족 누구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어째서, 유대교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신약의 서문이 열리고 있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교회가 전한 기쁜 소식의 핵심이 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사랑하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네 이웃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며, 교회가 교회 자신과 유대교를,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는 인사였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생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존재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나만이 진짜 나라고 믿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으로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나,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을 기뻐하는 '나'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이다. 이 정체가 없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바울 서신에서 놀라운 점 한 가지는, 그는 사람의 육체로부터 발생하는 자아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에서 비롯된 자아를 인간존재의 근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물론, 불교가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유교는 한국사회의 일상적인 질서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에서 '장유유서'의 질서를 가장 따지는 나라는 유교의 발원지인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이부터 따진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몇 월에 태어났는가를 따진다. 이렇게 해서 서열을 정하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점이다. 한국인들은 영어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서슴지 않고 나이를 물어본다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하대해야 할지, 존대해야 할지 자기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이로 서열을 따지지 않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한국은 유교 중에서도 주자학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특히, 양명학과 같은 실용적인 유학보다는 이념적인 주자학이 강한 나라이다. 조선은 유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500년씩이나 유지한 나라는 한국 뿐이다. 아마도, 공자가 조선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몹시 반가워했을지도 모른다.

조선 이후 대한민국이 된 지금에도 유교적 전통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 중에도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교의 가르침에 매료된 신학자들도 적지 않다. 유교적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비슷하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기독교가 '사랑'을 말한다면, 유교는 '인'을 말한다고 한다. '인'은 공자학을 연구하는 서양권에서는 'love'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인'이 영어권에서는 같은 표현이 되는 셈이다. 그 밖에도 비슷해 보이는 가르침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교와 기독교는 겉은 비슷할지는 모르나, 근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유교는 무엇에 근거한 종교인가? 유교는 '가문'을 중시한다. 가문, 즉 혈통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가문을 중시한다는 것은, 유교가 철저히 육체에 근거한 종교라는 것을 뜻한다. 육체에 근거한 종교들은 매우 합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한 매력적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유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문'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로 드러난다. 유교는 혈통적 가문을 기초로 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혈통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교회를 기초로 한다. 유교는 혈통이 다르면 같은 가문에 속할 수 없는 반면에,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같은 가문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교는 혈통으로 가문이 형성되지만, 기독교는 계명으로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유교와 기독교는 그 출발점부터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따라서, 유교의 가르침 중에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가르침이 있어 보여도,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실상 전혀 호환성이 없다. 같은 심장이어도 인간의 심장 대신에 개의 심장을 갖다가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사도바울은 근본이 다르면, 현상이 같아도 속지 말라고 가르친다. 근본이 다르면, 현상이 같아도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가장 과격하게(radical) 드러난 서신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바울은 여기에 서 근본이 다르고 현상이 같은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1]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팽과리가 될 뿐입니다.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스러워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고전13:1-3)





바울은 위 본문에서 세상에서는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쳐줄만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는가? 5개국어 7개국어를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200개가 넘는 모든 나라들의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로 대단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천사의 말’ 즉 신의 언어까지 통달한 사람이라면 더욱 대단한 일이 아닌가? 또한,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라고 하면, 그 자체로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이다.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세상에는 석학들이 많지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진 석학이 있다면, 그는 인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될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떠한가?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스라엘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게 했다고 하지만, 산을 들어서 옮겨놓았다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역시 실로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떠한가? 대단히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가? ‘자기 몸을 내어 주는 사람’은 어떠한가? 실로 대단한 희생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위대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한다. 사랑없이 하는 일은, 그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하는 일과는 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랑에 기반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기는 한가?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자랑’과 ‘감사’이다.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랑거리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랑에 기반한 삶은 자기의 삶을 감사로 여긴다는 것이다. 내 소유를 모두 내어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과 내 소유를 모두 내어주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기초를 가진 다른 삶인 것이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노벨평화상 같은 것을 받으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삶은 오히려 지이나 요란한 꾀과리이고,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고 선언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김 아무개의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인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의 혈통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김 아무개의 아들 김 아무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김씨 집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안인가? 나의 삶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삶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많이 해서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존경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은 교회에서는 전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집안도, 나의 재산도, 나의 지위도, 내가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쓴 것도 교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근본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가 옛 기반에 대해서 한 말은, 그것들은 전부 ‘오물’ 혹은 ‘쓰레기’였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이전에 갖고 있던 기반 위에서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 오물이고, 쓰레기라고 여길 정도이면,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바울의 형제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 수박화채

성실가족 좋은 정상도

성찬을 준비하면서 메뉴를 정하다가 디저트로 수박화채를 제안했다. 그런데 나도 내가 수박화채 만드는 실력을 못 믿겠는지라 수요일 가족모임 때 시식을 해보고 디저트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억으로는 10년 내로 3번 정도 수박화채를 만들어본 것 같다. 두 번은 집에서, 한 번은 주일에 교회에서 만들었다. 집에서 할 때 한 번은 우유를 넣은 수박화채를 만들고, 또 다른 한번은 사이다를 넣은 수박화채를 만들었다. 주로 아이들 먹으라고 만든 것이었는데 놀러 온 조카들이 한입 먹어보고는 그만 먹겠다고 했던 것으로 봐서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다. 그냥 수박으로 먹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았다.

그렇게 수박화채를 실패한지 1-2년 후에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실천사항으로 주일에 화채를 대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주일 전날까지 수련회였는데 당일 아침에 기억이 났다. 예배 후에 자리를 정리할 때 급하게 재료들을 사와서 화채를 만들었다. 수박이 차갑지 않아 화채에 얼음을 많이 넣어야 할 것 같았다. 근처 편의점에 있는 얼음을 몽땅 사가지고 왔고 새콤달콤한 맛을 떠올리며 오미자 엑기스를 샀다. 그런데 오미자 엑기스를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강해질까 봐 조금만 넣었다. 맛이 맹송맹송했지만 그런대로 먹을 만했었다. 그릇에 수박화채를 조금씩 떠서 날랐는데 반응들이 무덤덤했다. 맛있다는 말이 없었다. 계획을 어쨌든 실천한 것으로 만족했다.

이제 이번 가족모임에서 할 것까지 포함하면 수박화채는 10년 내로 4번을 만들게

된다. 이번에는 잘해보겠다며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뒤졌다. 수박화채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수박화채 생각만 해도 재미있었다. 무엇인가 하려면 일같이 느껴져서 부담이 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 실패했던 것인데도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에 수박화채 만드는 법을 물어볼까도 했지만 누가 수박화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냥 인터넷 레시피를 뒤졌다. 인터넷에는 주로 사이다, 우유를 넣는 레시피가 많았는데 그냥 수박 본연의 맛을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좀 다른 것은 없을까 하고 계속 검색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레시피를 찾았다. 그것은 수박을 잘라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꿀을 부어서 재웠다가 끓는 물로 찌는 방법이었다. ‘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걸.’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박을 찌면 무슨 맛이 날까, 맛이 없으면 수박 한 통을 다 버리나, 언제 찌서 가족모임에 가져갈까’ 하면서 이리 저리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일단 가족모임에서 몇 가지 종류의 수박화채를 시험해보고 찌는 것은 모임에서 협의를 해보자고 결정했다.

수박화채를 가족모임 전날 준비할까도 생각했지만 회사에 출근했다가 가야 했기에 가족모임 날 퇴근을 좀 일찍 해서 수박화채를 만들기로 했다.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러서 재료들을 살 생각을 하니 수박만해도 들고 가기 벅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성실누님과 통화하다 보니 성실누님이 수박을 주문해 주겠다고 한다. 고맙왔다. 퇴근하고 성실누님 집 근처 마트에서 재료를 사는데 재료비만 거의 4만원에 육박했다. 꿀이 비싸다는 것을 이번이야 알았다. 성실누님 집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수박화채를 만들기 시작했다. 성실누님은 열심히 스푼으로 수박을 떠주었고 나는 꿀물, 꿀물과

홍초액, 꿀물과 레몬즙, 사이다, 사이다와 우유, 이렇게 다섯 종류의 수박화채 베이스를 만들었다. 홍초액 넣은 것에서 식초 맛이 좀 나는 것 외에는 나름 다 괜찮은 맛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배가 고팠기 때문인 것도 같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사이다에 우유를 넣은 것은 우유가 엉겨서 보기가 안 좋았다. 가장 먼저 탈락했다. 차갑게 만들려고 모두 냉장고에 넣어놓았다.

빌립형님의 대접으로 가족 모두 오리고기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가족들 모두 진짜 많이 먹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드디어 냉장고에 있는 수박화채를 꺼내어 먹어봤는데 아까 그 맛이 아니었다. 가족들에게 준비한 수박화채를 모두 맛보게 했다. 빌립형님은 홍초액을 넣은 것이 맛있다고 하면서 두 그릇을 비우셨고 바다형님은 돈 많이 들고 애쓴 거라며 두 그릇을 비워주셨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성찬 디저트로 하자는 말씀은 안 하셨다. 그리고 항상 격려와 칭찬을 입에 달고 사시는 우리 찬미누님과 성실누님도 그냥 ‘맛있어’라고 하실 뿐이었다. 성찬 디저트로 부족하다는 것에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수박을 찌서 내놓은 것도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수박을 예쁘게 잘라서 내놓자는 의견이 강했다. 아, 이번에도 수박화채는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수박화채를 함께 만들고 맛보며 가족들과 재미있었다. 언젠가는 정말 달고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어서 가족과 교우들에게 대접하겠다. 2년 후를 목표로 수박화채 공부를 하겠다.





#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화음 김진승: 큰열매님에게 간장김과 손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유유님에게 보이스트목과 손편지를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시원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일대일 만남 양식에 따라 한가온님과 만남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불꽃님에게 감사편지를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푸른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씨앗님과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초록님과 차를 마시면서 만남을 갖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진주님과의 일대일 만남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뿌리님과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생명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고 밀반찬 선물을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늘빛님의 선물을 준비하여 만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나무님에게 김치를 선물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늘빛님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늘빛님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준비하여 만나고 대접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늘빛님에게 카톡 인사하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늘빛님을 도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한 주간 모퉁이 돌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해: 가족을 섬기는 모퉁이돌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달빛 석재호: 새롬님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통화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마리아님에게 반찬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보라님에게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좋은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섬겨준 소망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소망님에게 문자와 일대일 만남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소망님에게 감사와 격려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소망님과 일대일 만남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가족 모두와 일대일 만남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찬미님에게 감사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가족을 섬긴 빌립님에게 진한 곰탕을 선물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가족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가족을 섬긴 빌립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카라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마르다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즐거운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등대님에게 문자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카라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성실가족

성실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화요일 저녁에 월드컵공원에서 찬미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였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고, 지나간 잘못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크게 보며 사랑하며 살기를 격려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인도자로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항상 기다려주는 것이 고마웠고 성실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매니큐어를 선물했다, 바다님을 좋아하여 김밥과 과일, 커피를 준비해 한강변을 산책했다, 믿음의 동지로 함께 사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서 무엇보다 좋았다, 어느새 햇살이 뜨거워져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산책을 신청해야겠다, 주일 밖에 시간이 없는 광야님과 예배가 끝난 후 시원한 음료를 대접했다, 서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사귀는 시간이 좋았다, 광야님 마음이 편안해 보여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힘이 절정에 달하는 때는 예

수님이 조롱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때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포도가족

모퉁이돌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달빛님은 좋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감사문자를 보냈다, 기도하니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대일 만남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찾아가서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뿌듯함과 만족감을 주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꼭 시간을 내서 교회 밖에서 하겠다, 하루의 시작 기도를 할 때 보라님을 생각하였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서로의 교류를 위해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톡을 한 번밖에 보내지 못해 아쉬웠다, 마리아님을 좋아해서 화장품을 골라 선물했다, 화장품을 고르고 기도하며 마리아님을 생각하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겠다, 맑은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기에 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느낌과 실천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맑은가족

맑은님 집에서 4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샤론님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고 좋아하는 표현을 하였다, 나무님을 좋아하여 여러가지 반찬을 선물로 준비하고, 연경반 공부한 것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을 더 사랑하는 소원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나무님과 함께 101반 수강생과 청년을 사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좋다, 늘빛님을 상봉지하철에 마중 가고, 모셔다 드리며, 부추방아전을 굽는 것도 도우며 좋아하는 표현을 하여 감사하다, 늘빛님과 집밥 모임에 참여하여 젊은이들과 사귀면서 함께 보낸 시간이 즐겁고 유익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니, 감사가 넘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퍼주는

삶을 향해 성장하겠다, 교회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향해 정진하겠다, 식탁가족의 간식, 인도자 워십 간식 준비를 하겠다, 구름방에 물휴지를 비치하겠다"고 느낌과 실천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사랑가족

진주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랑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빨리 회복하길 기도하며 지냈다, 생명님을 좋아하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사진을 보며 기도하고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여름내의를 준비했다, 건강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항상 정성을 다해 가족들을 좋아하고 섬기는 일에 애쓰고 또 꾸준히 지속해가는 진주님 모습이 떠올라서 감사했다, 산에 올라가서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치면서 씨앗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씨앗님과 나눌 말씀과 기도를 적으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게 됐다, 씨앗님과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 씨앗님이 건강하고 좋은 삶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은 사랑하는 삶과 퍼주는 삶에서 오는 고난을 말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예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실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는 부분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가 바로 내 모습이 라는 점과 닿아 돌아왔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화음님을 더욱 좋아하기 위해 화음님에게 어울리는 티셔츠를 엄선해서 골라 선물했다, 꼭 쓰고 싶었던 정관장 쿠폰을 신나님을 위해 쓰니 기뻐다, 불꽃님과 연극을 보려던 날이 마침 휴관이어서 연기하고 대신 저녁식사로 생대구탕을 대접하였고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큰열매님과 보이스트록을 나누며 양육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유님에게 카톡으로 인사를 전

했다, 성찬빵, 소식지, 데리아끼 반찬, 요플레, 김치 등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푸른님 댁을 방문했더니 다녀와서 오히려 피로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겠다, 사랑가족에게 김치를 선물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조롱한 병사와 같은 것이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이다, 마르다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내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새겨 읽었다, 좋은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씨앗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은석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소식가족

카라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등대님이 호주에 가서 반찬으로 두고 먹을 수 있는 김을 선물했다, 항상 모든 일을 즐겁게 임하시는 카라님을 생각하며 카드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 기쁘고 즐거웠다, 카라님을 좋아하려고 선물과 쿠폰을 드렸다, 준비한 선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요한님이 지난 번에 맛있다고 한 성신여대 앞의 국진이

빵을 선물했다, 공부하면서 밤늦게 까지 활동하는 희은님을 생각해서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선물했다, 더욱더 희은님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결단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마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받으신 "조롱"이 사실은 "영광"의 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 말씀과 묵상으로 퍼주는 삶을 지향하는 한 주를 살아야겠다, 구름(장필), 스파이더맨(박민혁), 번개맨(박민건)와 미술공연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 홈스테이 하는 우리 반 콜라(이도원), 엔젤(김연우), 스파이더맨(박민혁)에게 간식을 사주겠다, 교우 한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식탁가족 라온(이다혜)에게 선물하겠다, 식탁가족 늘빛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미리내님에게 찰떡오븐구이와 과일청을 만들어서 선물할 것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양을 많이

해서 미리내님과 가족모두에게 선물을 하니 기분이 참 좋고 가족들을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좋다, 소망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소망님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실천했고, 소망님에게 필요한 현미를 선물했다, 어울님에게 드림가족 안에서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삶과 스토리와 캐릭터로 살아 즐거운 이야기를 적은 편지와, 마가퀴즈를 매주 성실하게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중간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덕분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대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것을 퍼주는 교회공동체가 자기에게 속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에 적용된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우에게 감사하며 어려운 것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 성령강림절기 조영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둘째,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살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 부서별 소식

매월 마지막 주에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린 6개의 부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각 부서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

이번 달에 춤은 다솜(이지원)선생님 담당으로 동방신기의 풍선을 췌습니다. 댄스 수업은 올해에 처음 들어왔지만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재미있어 하고 있으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이 수업은 고백(류지호)선생님과 온새미로(양동우)선생님 담당입니다. 게임으로 새 이름 스무고개와 색종이 발가락으로 뒤집기를 하였는데 매번 놀이 수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하여서 참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노래 시간은 초아(이다은)선생님이 담당하는데 이번 달에는 '유빌라떼'라는 돌림 노래를 하였습니다. 약간 어색하긴 하였지만 너무나도 예쁜 목소리들로 열심히 불러주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미술시간이 있는데 마당이 아름답게 꾸며질 생각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

2주기에는 학생부에서 쿠키만들기를 하였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12시에 모여서 쿠키를 만들고 다음날인 일요일에 대접하였습니다. 3주기에는 레몬에이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디저트 대접만 학생부 회비로 대접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여 대접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엠티를 갖습니다. YG디저트팩토리의 세부서인 마니파라부, 달콤쌈싸름부, 빠리나르다부로 엠

티팀을 정하였습니다. 저녁식사 준비는 빠나부가 밥을, 마파부가 찌개를 달짜부가 고기 굽는 것을 담당하였습니다. 저녁식사후 팀별게임과 전체게임을 부서별로 준비해와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다음날에 자전거도로에서 팀별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렸습니다. 그 이후 막국수를 먹고 서울로 와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는 토요일 정기모임에는 영화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 청년부

청년부는 스토리에 따라 Y팝스타 시즌1의 두 번째 미션인 '불후의 명곡'을 2주기의 스토리로 삼고, 청년모임 외의 다른 교우들과 동생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또한, 5월 10일에는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교회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5월 17일에는 장영진 목사님께 케익과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5월 17일부터는 청년부의 3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기의 주제는 '자작곡 발표'이며, 통크고 당당하고 밝은 사람으로 자존감을 키우며, 청년들간에 화목하고 교우들을 좋아하고, 교우들에게 잘하는 사랑의 실천에 더욱 집중하는 주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5월 24일 정기모임에서는 31일에 있을 사귄과 여가활동으로 여의도에서 자전거타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부터 청년부 정기모임에 참여한 이대용님은 새 이름을 '송진'으로 정했습니다.

## 성가대

5월 2일 토요일 월레모임으로 진주, 아모, 은석, 불꽃, 즐거운, 미리내 6명이 모였습니다. 코르위본겐을 계이름으로 부르고, 노래하듯이 불러보며 악보보기 훈련을 하였습니다. 예배음악의 성가대 곡을 파트연습 위주로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며 살면 찬양이 더 듣기 좋아질 것이라는 장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삶을 담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어 다른 교우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6월5일~6일에 예정된 성가대 엠티 장소를 평택항으로 확정했습니다.

## 편집부

5월 10일 주일에는 900호 소식지 퀴즈 추천 및 시상행사를 가졌습니다. 소식지 퀴즈에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시상식이 되었습니다.

5월 편집부는 교회 홈페이지 활동에 집중하여 하루 1번씩, 글이나 댓글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글과 사진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모임

공동체모임은 5월 6일 오전 5시 30분에 모여 생활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 모임은 필요에 따라서만 갖기로 했고, 5월 중에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6월 생활비 협의모임을 6월 6일 오후 5시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성령강림절기입니다. 형제를 먹이는 사랑으로 살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고, 누립니다.

2 오늘 설교로 함께 해주신 전주새누리교회 양진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데살로니가전서 읽기 모임은 주일 저녁 7시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인도자 워크숍이 진행되는 관계로, 휴강합니다. 연경반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주 정도씩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예가교회의 교인은 1년에 12주 참여를 권하고 있으니, 상반기나 하반기 중 정하여 참여 바랍니다. 또한, 연경반 강의는 매주 자료실에 업로드 하고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교우들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4 STS(Searching The Scriptures)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STS 모임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초청 바랍니다.

5 신앙입문반(101) 3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6기는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앙입문반을 인도하는 목사님과 섬기는 교우들과 초청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친교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공식 기도집회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목요일 밤 기도를 할 때에는 소식지의 '소식 및 공지'를 펴놓고, 교회의 활동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함해 주십시오.

7. 이번 주 화요일 오후에는 예가교회당에서 서울노회 임시회(108-1회)가 있습니다.

8 계좌로 헌금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헌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9.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성실, 광야님입니다. 오늘 배찬은 교우배찬으로 갖습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하고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소식가족이 대접합니다. 5월 봉헌위원은 바다님, 6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월	민수기 21장 ~ 민수기 25장
화	민수기 26장 ~ 민수기 31장
수	민수기 32장 ~ 신명기 1장
목	신명기 2장 ~ 신명기 7장
금	신명기 8장 ~ 신명기 14장
토	신명기 15장 ~ 신명기 22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



# Yega Community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새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